

미 증시, 리스크 온(Risk-On) 확산되며 상승 마감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Risk-On

•미 증시는 견고한 기업들의 실적과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 기록.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어지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2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81.2% 기록. 또한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3분기 단위노동비용은 0.8% 감소해 지난 해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 이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를 완화시키며 전일에 이어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주요 통화대비 약세를 보임. 변동성 지수(VIX)는 6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역사적 평균을 하회 (다우 +1.70%, 나스닥 +1.78%, S&P500 +1.89%, 러셀2000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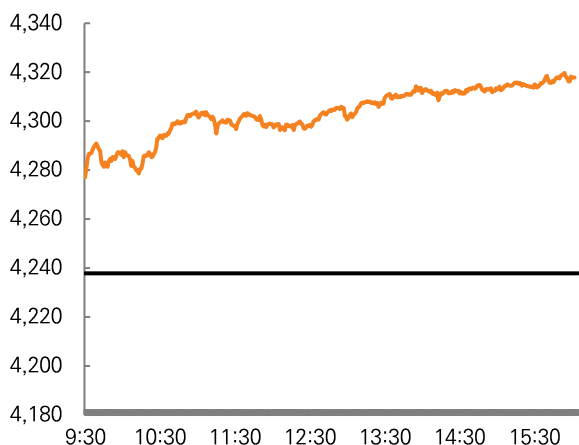
특징 종목: 부동산 강세

- (섹터) S&P 500의 전 섹터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3.11%), 부동산(+3.09%), 경기소비재(+2.40%) 등이 상승을 주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0.91%)를 제외한 10개 섹터가 1~3% 상승.
- (상승) 로쿠(+30.73%), 쇼피파이(+22.36%), 팔란티어(+20.44%), 도어대시(+15.66%), 스타벅스(+9.48%), 사이버아크(+7.27%), 페이팔(+6.58%), 일라이릴리(+4.65%) 등은 3분기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큰 폭의 상승세 기록.
- (하락) 솔라엠티(-3.95%), 파파존스 인터내셔널(-3.53%), 에어비앤비(-3.32%), 로크웰 오토메이션(-3.13%), 메리어트 인터내셔널(-1.64%) 등은 향후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전망 하향 영향으로 하락.

한국 증시 전망: 확산이 필요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3.20%, MSCI 신흥 지수 ETF는 1.7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32.66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34% 상승. KOSPI는 1%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11월 첫 2거래일 동안 국내증시는 기관(+9,780억원)과 외국인(+3,270억원)의 동시 순매수에 힘입어 국내 증시는 3% 넘게 상승. 특히, 반도체(+5.19%)에 대한 외국인(+5,120)과 기관(+2,140)의 매수가 집중되며 지수대비 아웃퍼폼. 다만, 2차전지 업종(IT가전, 화학, 철강)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홀대(-1,680)’가 지속되며 국내 기관 중심으로 순매수(+2,640)가 집중되는 모습. 지속적이고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반도체’ 이외의 업종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게 필요.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43.12	+1.81	상해종합	3,009.41	-0.45
KOSDAQ	772.84	+4.55	홍콩항생	17,230.59	+0.75
DOW	33,839.08	+1.70	인도센섹스	64,080.90	+0.77
NASDAQ	13,294.19	+1.78	유로스톡스 50	4,169.62	+1.90
S&P 500	4,317.78	+1.89	영국	7,446.53	+1.42
캐나다	19,626.34	+2.87	독일	15,143.60	+1.48
일본	31,949.89	+1.10	프랑스	7,060.69	+1.8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① 실적기대 Up ② 긴축우려 Down

미 증시는 견고한 기업들의 실적과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 기록.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어지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2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81.2% 기록. 또한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3분기 단위노동비용은 0.8% 감소해 지난 해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 이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를 완화시키며 전일에 이어 국제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주요 통화대비 약세를 보임. 변동성 지수(VIX)는 6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역사적 평균을 하회

7부능선 넘은 '3Q 어닝시즌'

이 날 장 시작 전까지 S&P 500 기업의 약 76% 정도가 3분기(Calendar Year) 실적 발표를 완료. 특히, 전일 장 마감 후 쉐콤, 도어대시, 로쿠 등과 금일 장 시작 전 일라이릴리, 노보 노디스크, 스타벅스, 쇼피파이 등 주요 기업들이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공개하며 큰 폭의 상승 기록. 어닝과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은 각각 81.2%와 48.7%를 기록.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2021년 3분기(8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은 2019년 3분기(47.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그러나 이번 분기 이익과 매출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각각 2.7%(vs. -1.2% 예상), 1.9%(vs. 1.1% 예상)로 분기말 예상 수치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 또한 향후 12개월 이익 리비전 모멘텀 역시 지난 주 -0.15에서 0.10으로 개선.

FOMC 이후, 긴축우려 완화

1일 FOMC를 소화하며 미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거의 20bp나 하락하며 지난 3월 15일(-23bp)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 기록. 이는 연준과 시장 간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즉 연준은 제한적인 정책을 신중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시장은 이를 긴축사이클의 종료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물론 추가 긴축의 여지가 상당 폭 줄어든 상황은 맞지만, 향후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는 시차를 두고 해소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

그러나 금일 발표된 노동시장 데이터는 추가 긴축우려를 완화시키는데 기여. 우선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대비 5천명 증가한 21만 7천명을 기록하며 7주 만에 최고치 기록. 또한 분기별로 발표되는 노동시장 생산성과 단위비용의 경우, 생산성을 더 높아지고(2Q:3.6%→3Q:4.7%) 비용은 크게 감소하는(2Q:3.2%→3Q:-0.8%) 것으로 나타나. 특히, 단위노동비용은 지난 해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물론 시장이 예상했던 0.7% 증가에 크게 못미쳐.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필요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부동산 강세

(섹터) S&P 500의 전 섹터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3.11%), 부동산(+3.09%), 경기소비재(+2.40%) 등이 상승을 주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0.91%)를 제외한 10개 섹터가 1~3% 상승.

(상승) 로쿠(+30.73%), 쇼피파이(+22.36%), 팔란티어(+20.44%), 도어대시(+15.66%), 스타벅스(+9.48%), 사이버아크(+7.27%), 페이팔(+6.58%), 일라이릴리(+4.65%) 등은 3분기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큰 폭의 상승세 기록. 한편, 펠로톤 인터랙티브(+12.88%)는 이번 분기에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가파른 매출 감소를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하락했으나, 롤루레몬(+2.07%)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힌 후 상승 반전. 퀄컴(+5.83%) 역시 매출과 이익 모두 감소한 실적을 공개했지만, 시장 예상보다 나은 매출 전망을 밝히며 상승 기록.

(하락) 모더나(-6.52%)는 백신 수요 감소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 공개. 크록스(-5.28%)는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연간 전망 하향. 솔라엠티(-3.95%), 파파존스 인터내셔널(-3.53%), 에어비앤비(-3.32%), 로크웰 오토메이션(-3.13%), 메리어트 인터내셔널(-1.64%) 등은 향후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전망 하향 영향으로 하락.

상품 및
FX시장 동향

우라늄 15년 만에 최고치

(외환) 달러인덱스는 연준의 긴축 우려 완화와 영란은행 통화정책 결정,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구두 개입 등의 영향으로 전일대비 0.4% 하락. 그러나 지난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05.5에서 106.7 사이에서 제한적 박스권 등락하는 모습.

(금리) 노동시장 냉각에 따른 연준의 긴축 우려 완화가 예상되자, 전일에 이어 미 국채 10년물은 7.7bp나 하락하며 이틀동안 27bp 하락. 반면, 2년물은 전일대비 5bp 상승하며 이틀 동안 9bp 하락하는 데 그치며 장단기금리차는 -33bp로 역전 폭이 확대되는 ‘불 플래트닝(Bull Flattening)’ 나타나.

(원자재) 우라늄 가격은 파운드당 74달러를 돌파하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이는 불안정한 국제 유가와 탈탄소화 목표로 인해 원자력 투자가 증가하며 공급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

한국
주식시장 전망

확산이 필요

MSCI 한국 지수 ETF는 3.20%, MSCI 신흥 지수 ETF는 1.7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32.66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34% 상승. KOSPI는 1%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11월 첫 2거래일 동안 국내증시는 기관(+9,780억원)과 외국인(+3,270억원)의 동시 순매수에 힘입어 국내 증시는 3% 넘게 상승. 특히, 반도체(+5.19%)에 대한 외국인(+5,120)과 기관(+2,140)의 매수가 집중되며 지수대비 아웃퍼폼. 다만, 2차전지 업종(IT가전, 화학, 철강)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홀대(-1,680)’가 지속되며 국내 기관 중심으로 순매수(+2,640)가 집중되는 모습. 지속적이고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반도체’ 이외의 업종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게 필요.



옥에 티 ‘태양광’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59	대형 가치주 ETF (IVE)	+1.87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2.31
소매업체 ETF (XLY)	+2.61	소형 가치주 ETF (IWN)	+3.24
온라인소매 ETF (EBIZ)	+2.84	대형 성장주 ETF (VUG)	+1.93
미국 인프라 ETF (PAVE)	+2.09	중형 성장주 ETF (IWP)	+2.34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2.01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2.80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98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99	미국 국채 ETF (IEF)	+0.62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61	하이일드 ETF (JNK)	+1.10
바이오섹터 ETF (IBB)	+1.40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3.25	물가연동채 ETF (TIP)	+0.46
반도체 ETF (SMH)	+2.59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1.1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670.03	+3.11	+0.93	-1.60
부동산	215.06	+3.09	+4.35	+2.37
경기소비재	1,253.70	+2.40	+7.72	-1.10
금융	553.24	+2.25	+3.82	+1.04
산업재	851.96	+2.05	+3.52	+0.26
소재	488.32	+1.93	+3.43	+0.05
유틸리티	311.97	+1.89	+2.70	+9.43
IT	3,014.77	+1.71	+6.26	+2.40
헬스케어	1,476.63	+1.57	+1.20	-1.53
필수소비재	725.98	+1.26	+1.75	+0.46
커뮤니케이션	223.78	+0.91	+5.18	-0.75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2.46	+2.59	-0.83	Dollar Index	106.146	-0.69	-0.43
브렌트유	86.85	+2.62	-0.23	EUR/USD	1.0621	+0.48	+0.55
천연가스	3.47	+0.43	+9.18	USD/JPY	150.48	-0.31	+0.05
금	1,993.50	+0.28	-0.22	GBP/USD	1.2203	+0.42	+0.61
은	22.85	+0.31	-0.21	USD/CHF	0.9060	-0.20	+0.80
알루미늄	2,227.50	-0.40	+1.37	AUD/USD	0.6433	+0.63	+1.76
전기동	8,143.00	+0.41	+1.97	USD/CAD	1.3737	-0.86	-0.68
아연	2,478.00	-0.88	+1.77	USD/RUB	93.1982	+0.65	-0.51
옥수수	470.00	-1.05	-1.93	USD/BRL	4.9555		
밀	565.50	+0.45	-2.63	USD/CNH	7.3286	-0.10	+0.05
대두	1,328.25	+1.05	+2.19	USD/KRW	1,342.90	-1.06	-1.26
커피	165.35	+3.47	+2.57	USD/KRW NDF1M	1,332.66	-1.05	-1.3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661	-7.30	-18.34	스페인	3.769	-6.90	-20.00
한국	4.160	-12.50	-24.00	포르투갈	3.402	-8.60	-17.90
일본	0.926	-3.50	+5.10	그리스	4.099	-6.50	-10.30
독일	2.717	-4.70	-14.40	이탈리아	4.631	-9.60	-23.9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